

5조는 혜능을 구강의 나루까지 전송했다. 혜능은 스승은 손수 노를 저어려 했다. 혜능은 황망해 하며 자신이 노를 잡겠다고 나섰다. 스승이 "내가 너를 건네 주어야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혜능은 "제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는 용당 스승께서 저를 건네 주셔야겠지만 깨달고 난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 한형조 무문관 탐방

#### 육조의 의발 ⑥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말도 서툰 시골 무지렁이가 스승님의 가르침과 은사를 입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본성으로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自性自度)." 스승은 대견해하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 그 뜻을 명심하라. 앞으로 이 가르침은 널리 퍼질 것이다. 잘 가거라.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가 5년간은 머리칼을 보이지 마라."

스승과 작별한 혜능은 두어달이 걸려 대유령에 이르렀다. 지금의 강서성과 광동성을 나누는 경계 부근이다. 그동안 가사를 가로채고 법동을 뺏으려는 무리들이 사방 그를 뒤쫓고 있었다. 대부부 지쳐서 돌아갔는데 오직 한 사람이 이곳 대유령에서 혜능을 따라왔다. 성은 진씨(陳氏), 이름은 혜명(惠明)이라고 했다.

지금 살펴볼 공안은 바로 이때의 일을 적고 있다. 진혜명은 한 대 이후의 명승이 집안이다. 어려서 불교에 입문하여 23세



그림·이준석

금 전의 비밀의 말씀, 비밀의 뜻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자신의 면목을 되돌아 본다면 비밀은 바로 너에게 있다!" 혜명은 말했다. "제가 황매산(黃梅山)에서 무리와 더불어 있을 때는 자신의 면목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그 비밀의 입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보니 출사 물을 마셔 차고 뜨거움을 알듯 사태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행자 시야말로 제 스승이십니다." 육조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너는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모신 셈이 된다. 그것을 잘 지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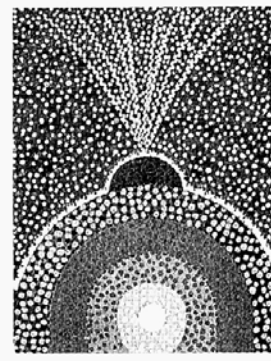
혜명을 깨우치고 난 후 혜능의 종적은 문득 사라진다. 그것도 15년간. 아마도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통해 정신을 가다듬고 포교를 위해 경전에 대한 지식을 깊이 다져왔을 것이다. 한동안 화전민이나 사냥꾼 무리에 섞여 지내기도 했다. 자신의 신분과 그들에게도 부처와 본성의 가르침을 심어주려고 애썼다. 사냥꾼들이 말갈 짐승을 몰래 풀어주기도 하고 식사때는 고기를 말치고 푸성귀만을 먹었다고 한다. 오랜 은둔은 그의 나이 마흔이 가까워오는 676년까지 계속되었다. 15년의 은둔에도 불구하고 나이 마흔이라는 것이 의

## 法數로 배우는 불교

<47>

염주는 불자들이 소중히 여기고 널리 애용하는 성스러운 신앙 도구이다. 가정에 모셔두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요즘엔 안전을 염려하는 탓인지 지나 없이 차안에까지 정성껏 매달고 다닌다. 신심과 수행을 기르는 성구(聖具)가 일종의 액운을 방지해주는 부적 역할도 해주는 셈이다.

일정치 않지만 백여덟개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목환자경>에 의하면 목환자 백여덟개를 실로 꿰어 수주를 만들어 돌리면서 불·법·승 삼보를 항상 염지(念)하면 중생마음속의 백여덟가지의 번뇌가 소멸되고 수승한 과위를 얻는다고 실해져 있다. 목환자는 무



◇현정 작 '선(編)'

### 생로병사·우비고뇌 등 미혹된 마음 백팔염주는 108번뇌 소멸 법구

환자과에 속한 중국 원산지의 모감주나무를 말한다. 근간에는 종류도 많아서 보리수염주, 율무염주, 산호염주, 수정염주, 금강염주 등 매우 다양하지만 애초에는 경전에 의거해 모감주나무열매를 가지고 염주를 만들었던 것이다. 백팔염주는 <목환자경>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백팔번뇌를 상징해서 지어진 숫자이다. 중생의 마음에서 일으키는 번뇌의 종류가 여덟 백팔이지만 되었더라면 백팔이라는 숫자를 산출하는데는 그만큼 까닭이 있다.

(意: 뜻) 인 육근(六根)을 가지고 색(色: 물질) 성(聲: 소리) 향(香: 냄새) 미(味: 맛) 촉(觸: 감촉) 법(法: 대상) 인 육경(六境)속에서 산다. 즉, 눈은 물질과 만나고 귀는 소리와 만나며 코는 냄새와 만나고 혀는 맛과 만나며 몸은 감촉과 만나고 마음은 대상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난 육근과 육경은 손바닥이 서로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 좋다(好: 호) 나쁘다(惡: 오) 그저 그렇다(平: 평)는 세가지 분별을 일으켜 열여덟가지 번뇌를 생기기 하는가 하면 (6×3=18), 즐거운 느낌(樂受: 낙수) 괴로운 느낌(苦受: 고

수) 무덤덤한 느낌(捨受: 사수)을 일으켜 열여덟 번뇌를 생기기게도 하여(6×3=18)도합 36번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생된 36번뇌는 이제 시간적으로 작용하여 과거 현재 미래 삼세(三世)에 걸쳐 이미 지어놓거나 지금 짓고 앞으로 지을 것으로 소급되어(36번뇌×3세) 백팔가지의 번뇌의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혹자들 중에는 번뇌를 자기를 괴롭히는 잡념이나 고민거리를 가리키는 줄 잘못 알고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는 자못 그 범주가 넓다. 여기서는 비록 번뇌의 종류를 108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번뇌의 수효는 한량이 없다. 법을 깨쳐 부처가 되기전까지 일으키는 생각은 모두 번뇌가 되는 셈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 "움직이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

남으로 간 혜능 조계지방서 36년간 포교

때 구족계를 받고 5조의 문하에 있던 중에 의발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혜능을 뒤쫓아 온 것이다. <육조단경>에는 이 대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다만, "혜능이 미련없이 의발을 던져주었지만 혜명은 교법을 위해 왔을 뿐 아니라 혜능은 그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그의 마음을 열어준 다음 북방의 교화를 맡게 했다"고만 적고 있다. (무문관)의 공안은 두 사람의 만남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준다. 강의가 길어지는 봄에 처음의 공안을 읽은 사람들을 위해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짚어준다.

혜명상좌가 자신을 좇아 대유령에 이르른 것을 보고, 육조는 의발을 돌 위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옷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니 힘으로 다룰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말 걸테니 갖고 가거라." 혜명이 다가가 잡어들었는데, 옷은 태운처럼 골쎩도 하지 않았다. 혜명은 두려움에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는 진리를 구하려 왔지, 옷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께서는 깨달음을 열어보여 주십시오." 육조가 말했다. "선(善)을 생각하고 악(惡)을 생각할 때 바로 그때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은 어디 있는가." 이 말에 명상좌는 크게 깨달고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그 때 울며 예를 올리면서 물었다. "조

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혜능이 5조를 만난 것이 나이 스물 두였었다. 그리고 단지 8개월을 머물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혜능은 때가 왔음을 알고 산속을 나와 광주(廣州)의 법성사(法性寺)로 갔다. 그곳은 5조의 법맥을 이어받은 인종(印宗)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는 곳이었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 깃발이 울고 있었다. 한 승려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자 다른 승려가 "아니, 바람이 움직인다"면서 다투었다. 혜능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이다"고 하여 좌중을 소스라치게 했다. 인종은 혜능을 뒷자리로 청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의 막힘없는 대답은 쉽고도 분명하며 이치에 맞았다. "내 설법은 깨진 기왓장같고 당신의 가르침은 마치 순금과 같습니다." 감동한 인종은 "5조 황매의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혹시 당신이 아닌니까"라고 물었다. 혜능은 이 질문에 겸연쩍은 웃음으로 답했다. 인종은 만난 이듬해 혜능은 조계(曹溪) 지방으로 가서 신도들과 함께 보림사(寶林寺)를 지었다. 그는 이곳에서 71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6년간을 머무르며 가르침을 폈다. 여기까지가 6조 혜능의 대강의 전기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불교와 수학

<40>

#### 무한비교

김용운

대오의 경지를 수학의 무한에 빗대면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학에서는 두 개의 양에 대한 비교를 1대 1로 설명한다. 어느 강연회를 개최한 강당에는 일정한 수의 의자가 있으며 한 자리에 꼭 한 사람이 앉는 것으로 가정해 보자(의자는 100개로 가정한다). 수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그 많은 사람의 수를 정하는 척도는 강당 안에 있는 의자의 개수이다. 이때 3가지 경우가 있다.

- ①빈 의자가 있다면 참석자 수는 그 의자의 수인 100보다 적다.
- ②빈자리와 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참석자 수는 꼭 100이다.
- ③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수에 100을 합친 것 만큼의 참석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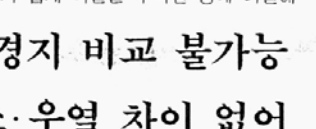
이와 같은 관정을 내리는 데는 1대 1 대응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즉 두 집합 A, B 사이에 하나도 빠짐없이 1대 1 대응이 성립할 때는 A와 B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의 수가 같으며 과부족이 생길 때는 그 수만큼의 차이가 있다. 얼핏 유치하기조차 한 이 생각이 무한을 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한을 셈할 때 기본적인 척(尺) 역할을 하는 것이 1, 2, 3, ..., n, ...라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다. '1, 2, 3, ..., n, ...'은 가장 기본적인 수이며 얼마든지 늘어가는 '무한'이다.

지금 집합 A를 '1, 2, 3, ..., n, ...'로 하고 B를 '2, 4, 6, ..., 2n, ...'으로 된 짝수 전체를 집합이라

10배수의 집합 C={10, 20, 30, ...}와 100배수의 집합 D={100, 200, 300, ...} 등과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같은 정도의 무한인 것이다. 또 n에 1/n을 대응시키면 (1/1, 1/2, 1/3, ..., 1/n, ...)라는 1보다 작은 1을 분자로 갖는 분수 전체의 집합과도 같은 정도의 무한이다. 한편 자연수보다 큰 집합인 0과 마이너스의 수를 포함한 수들의 집합을 생각해 본다. 알기 쉽게 이들을 수직선 상에 나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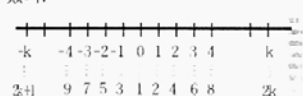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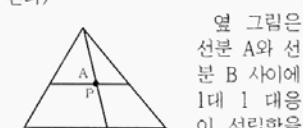


1, 2, 3, 4, 5 ... 자연수는 0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뻗어 있고 -1, -2, -3, -4, -5 ... 음의 정수는 0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뻗어 있다.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 좌우 양쪽에 걸쳐 뻗어 있는 음수를 포함한 정수 전체의 집합은 양(플러스)만 있는 집합보다 크다. 그러나 정수 전체를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여 갈 때, 이들 사이에 1대

1대 대응이 빈틈없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의 자연수 k에는 2k, 마이너스의 정수 -k에는 2k+1을 대응시키면 이들 사이에는 어김없이 1대 1 대응이 성립한다. 이와 같이 1대 1 대응으로 수들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면 미처 상상하지 못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짧은 선분이라도, 가령 0과 1 사이의 '0 ----- 1'과 어떤 길이를 갖는 직선 사이에도 1대 1의 대응이 가능하다. (P와 P'로 대응시킨다)



이 입장에서 보면 무한개의 점을 갖는 선분 사이에도 큰 것, 작은 것의 구별이 없어짐을 알 수 있다. 수학적인 무한의 입장에서 대소, 우열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물며 마음의 세계에서 대오(大悟)의 경지를 얻은 두 진인(眞人) 사이에 비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 불교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텐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텐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류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인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텐의 계획이다.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 범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과가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시연스님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목

###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